

# '표최고' 손흥민 vs '슈퍼스타' 네이마르...누가 웃을까

부상으로 조별리그 2·3차전 거른 네이마르, 출격 가능성 ↑  
孫, 2차례 대결 모두 판정패...골 넣으면 韓최다 득점자 우뚝

아시아를 넘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최고의 골잡이로 우뚝 선 손흥민(토트넘)과 브라질의 '슈퍼스타'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가 월드컵 16강전에서 정면충돌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6일 오전 4시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조별리그 H조에서 1승 1무 1패, 2위로 16강에 올랐고, 브라질은 2승 1패로 G조 1위를 해 8강행 길목에서 한국을 상대하게 됐다.

한국은 브라질을 꺾으면 사상 처음으로 원정 월드컵 8강 진출의 대업을 이룬다. 만약 한국이 브라질을 꺾으면 같은 날 앞서 키크프하는 일본-크로아티아 경기 승자와 8강전을 치르기에 '한일전'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랭킹 1위 자타공인 세계 최강 브라질 월드컵 최다 5회 우승 기록을 보유한 브라질은 자타공인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는다.

이번 대회에서도 프랑스, 아르헨티나와 함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힌다.

현재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에 올라있다. 한국(28위)보다 27계단 높다.

한국은 그동안 브라질과 7차례 A매치를 치러 딱 한 번 이겼다. 1999년 3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 3번째 대결에

서 김도훈 전 울산 감독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했다. 한국 축구가 지금도 '혼장'처럼 기억하는 경기다.

나머지 6경기에서는 한국이 다 졌다. 특히 최근 3차례 대결에서 모두 2점 이상의 격차로 패했다. 최근인 올해 6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맞대결에서는 1-5로 대패했다.

▷네이마르, 2골 추가면 펠레와 나란히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에서 10년간 리그 최고의 선수로 군림해온 네이마르는 대표팀에서도 122경기에서 75골을 터뜨렸다.

특히 앞으로 2골을 더 넣으면 브라질 선수의 A매치 최다골 타이 기록으로 '축구 황제' 펠레(77골)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앞서 월드컵 본선 데뷔 무대였던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준결승,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는 8강에서 팀이 탈락해 연이어 아쉬움을 삼킨 네이마르는 카타르에서 2전 3기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세르비아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오른 쪽 발목을 다쳐 2, 3차전에는 나서지 못했으나 16강전에는 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마르 외에 공격수 가브리엘우 제주스(아스널), 센터백 알렉스 텔리스(세비야)가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으나, 브라질은 여전히 강하다.

▷손흥민, 네이마르와 3번째 맞대결 벤투호 공격의 중심에는 이번에도 손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 티켓을 놓고 맞대결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잡이 손흥민(토트넘)과 브라질의 '슈퍼스타'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가 16강전에서 정면충돌한다. 사진은 지난 6월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브라질의 친선경기에서 손흥민과 네이마르가 경기 종료 후 손바닥을 부딪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DB

흥민이 설 전망이다. 지난 시즌 EPL에서 23골을 폭발하며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 골잡이로 인정받는다.

네이마르도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22골을 넣었으나, 프랑스 리그1은 EPL보다 한 수 아래 리그로 평가된다.

손흥민과 네이마르는 프로 무대에서

맞대결을 펼친 적은 없다.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서만 2차례 대결해 두 네이마르가 관중승했다.

첫 대결은 2013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평가전이다. 주전이었던 네이마르는 프리킥 골을 터뜨리며 브라질의 2-0 승리에 앞장섰고, 손흥민은 후반 교체로 투입됐으나 공격포인트를 올리

지는 못했다.

2019년 11월에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국과 브라질이 평가전(한국 0-3 패)을 치렀다. 손흥민은 경기에 선발로 나서지만,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경기를 소화하지 못해 맞대결이 불발됐다.

올해 맞대결에서는 손흥민은 폴타인을 소화했으나 득점하지 못했고, 네이마

르는 발을 다친 직후에도 페널티킥으로만 2골을 넣으며 브라질의 승리에 앞장섰다.

브라질 대회에서 1골, 러시아 대회에서 2골을 넣은 손흥민이 이번에 브라질을 상대로 득점한다면 안정환, 박지성(이상 3골)을 넘어 한국 선수 월드컵 최다 득점자로 우뚝 서게 된다. /연합뉴스

## 선수 몸값 브라질 1조5천600억 vs 韓 2천260억 '7배'

본선 참가 32개국 중 잉글랜드 이어 2위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한국 축구가 이제 사상 첫 '원정 대회 8

강'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그런데 상대가 '세계 최강' 브라질이다.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최종 명단에 든 26명 중 22명이 유럽 프로축구 빅리그인 잉글랜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다.

몸값도 어마어마하다. 선수들의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축구 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참가한 브라질 선수 26명의 시장 가치, 즉 이적료 추정치 총액은 11억4천만유로(약 1조5천600억원)다.

이번 대회 본선에 참가한 32개국 중 잉글랜드(12억6천만유로)에 이어 2위다.

브라질에서 가장 시장 가치가 높은 선수는 측면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로 1억2천만 유로에 달한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이번 대회 32개 참가국을 통틀어서도 프랑스의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1억

6천만유로)에 이은 두 번째로 몸값이 높게 책정된 선수다.

이에 맞서는 한국 대표팀의 시장가치 총액은 1억6천448만유로(2천260억원)다. 브라질의 7분의 1 수준이다.

그나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토트넘) 덕분에 격차가 이 정도다.

트랜스퍼마크트가 추산하는 손흥민의 이적료는 7천만유로다.

한국 대표팀에서는 손흥민 다음이 3천500만유로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나폴리)다. 이어 16강 진출의 주역인 황희찬과 이강인(마요르카)이 1천200만유로로 뒤를 잇는다.

몸값만 놓고 보면 한국과 브라질의 대결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연합뉴스

## 16강전도 '약속의 붉은 유니폼' 입고 뛰다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달성한 태극전사들이 '세계 최강'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도 붉은색 홈 유니폼을 입는다.

FIFA는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 나선 각 팀의 유니폼 색상을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축구 대표팀은 6일 오전 4시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열리는 브라질과의 대회 16강전에 상·하의 모두 붉은색 유니폼을 착용한다. 양말도 붉은색이다.

한국은 이번 대회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과의 H조 조별리그 3경기에 모두 이 차림으로 나선 바 있다.

3일 오전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도 이 유니폼을 입고 출전해 포르투갈을 2-1로 격파,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이자 역대 세 번째 월드컵 16강 진출을 달성한 대표팀은 이제 FIFA 랭킹 1위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인 브라질을 만나는데, 다시 붉은 유니폼을 입고 또 한 번의 '기적'을 꿈꾼다.

골키퍼는 보라색 상·하의를 입고, 양말도 같은 색을 신는다.

상대 브라질은 노란색에 초록색 포인트가 들어간 자국 고유의 유니폼을 입고 한국을 상대한다. /연합뉴스



**희망2023 나눔캠페인**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성금 접수 계좌

• 광주사랑의열매 : 053-107-999990(광주은행)  
• 전남사랑의열매 : 301-4000-3000-01(농협은행)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XP RON

엑스페론

[ Yes, it's true balanced ]

**밸런스 라인**